



코스피	코스닥
3091.24 (-29.39)	960.78 (-6.64)
금리 (우대금리)	환율 (원/달러)
0.994 (+0.012)	1119.60 (-43.10) (8일)



[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사회문제 해결에
재산 절반 이상 기부
02

‘애플카 협의’ 중단에도 K-모빌리티 뜰수 밖에 없는 이유는?

플랫폼·배터리·인포테인·반도체 국산 부품 없인 미래차 못 만든다

글로벌 플랫폼사 국산 배터리 사용
삼성 ‘엑시노스 오토’ 아우디 장착
테슬라 부품 상당수 국내서 공급



캐딜락이 내년 4월 공개할 2021년형 에스칼레이드에 38인치 커브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캐딜락

전세계 모빌리티 업계가 한국 기업을 향한 구애 작전에 한창이다. 한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기아는 8일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공식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애플카’에 E-GMP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소문을 부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비록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인 애플에 자동차를 공급하는 ‘쾌거’는 무산될 수 있지만 오히려 현대차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상태다. 애플이 협력을 요청할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플랫폼을 확보한

몇 안되는 기업이다. 미국 테슬라와 GM, 독일 폭스바겐 등 일부만이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는 스키테크보드 플랫폼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카누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수소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대차뿐 아니다. 애플카가 E-GMP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부품 대부분을 국산으로 채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미 테슬라도 부품상

당수를 국내 업체에서 공급받는 상황, 관련 업계 기술력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당장 폭스바겐과 GM 등 플랫폼 개발 업체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를 쓰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에서도 공급을 받지만, 품질 문제로 중국 내수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동력 장치도 LG전자가 핵심 공급사 중 하나다. 이미 GM에 구동모

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포드 등에 공급하는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시장 점유율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문에서도 LG를 지나치기 어렵다. 일찌감치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LCD 패널을 납품해왔고, 최근에는 캐딜락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급차에 P-OLED를 공급하는 등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을 3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LG전자는 G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담해 만든다.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에 필수품이 된 반도체도 결국 ‘메이드인코리아’를 중요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인포테인먼트용 로직반도체 ‘엑시노스 오토’를 이미 아우디에 공급기로 했고, 자율주행에 쓰는 반도체도 테슬라 제품을 위탁 생산 중, 차세대 5나노 제품 개발까지 맡으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국가대표 혁신기업’ 올 400곳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될 400개 혁신 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 방식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될 400개 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분야별 주관부처가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 선정하고, 선정기업 중 금융수요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된 기업은 총 279곳으로, 이 가운데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752억원의 대출·보증·투자가 지원됐다.

현재 297곳 중 90개사에 1조 지원 금융위, 금융권 규제체계 제도 정비 일정비율 투자 운용사에 인센티브 ESG리스크 따라 금리·한도 차별화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올해는 혁신기업국가대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민간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 400개 이상 혁신기업 국가대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리스크에 따라 대출한도·금리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 방식도 정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기후·환경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ESG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ESG투자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40조5000억원 규모로 7~8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권 규제체계에 ESG 요인들을 통합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이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도 더욱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 ESG관련 논의는 선의·당위에 근거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의 핵심 리스크이자 기회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175조원+@프로그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합제한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설 앞두고 현충원 찾은 시민

설날을 나흘 앞둔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시민이 장병 묘역에서 성묘를 하고 있다.

/뉴스시

“AZ백신 변이에 약하지만... 고위험군 접종이 더 안전”

(아스트라제네카)

중대본 ‘백신 접종 특집설명회’

국내 도입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최근 유행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발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낮을 수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증세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특집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스위스에 이어 남아공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백신 사용을 보류하면서 불안감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3일 에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개발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고위험군이라면 백신을 접종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

신의 개발 초기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맞다”며 “효과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보면 접종하는 것이 득이 훨씬 더 많다”며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득실을 따졌을 때 접종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행하는 남아공발 변이에 대한 백신 방어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백신 항체 생성물에 대해 “국내에 도입하려는 백신 5종(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소한 90%에서 거의 100%까지의 항체 생성물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아공 변이주에 대해서는 백신에 의해 유도된 중화항체 방어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온 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바이러스의 기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